

강희복 아산시장, 시민과의 대화 나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구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

강희복 아산시장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7개 읍면동 연무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23만 시민의 진솔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첫날인 송악면에서는 남광동 분제로 그동안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강희복 시장의 사과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역촌2리 류재흥 씨는 생활 용수 및 식수의 부족으로 간이 상수도 설치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강희복 시장은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거산2리 조봉구 씨는 청정지역인 거산리에 납골당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시에서 추진하는 납골당 위치는 가시거리에서 자연적으로 은폐되는 지역이며 오염시설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시역발전 위한 계기로 삼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강당리 건축제한 해제, 농로포장 및 수해피해지역 복구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으며 현지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배방면에서는 답답하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구평리 이정현 씨는 아산의 관문인 21번 도로가 출퇴근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교통마비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다. 또한 배방~탄정간 도로를 잇는 산업인도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해 주기를 희망했으며 강희복 시장은 교통체증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21호 국도는 2013년 확·포장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배방~탄정간 도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구삼지역 발전방안 및 구보산역사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 신규아파트 입주 도로 개설 및 지하수 오염, 불법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강희복 시장은 질문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탕정면에서는 침탄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다.

▶북산1리 류현영 씨는 북산리는 옛세뇨가 과반수 이상인 실정으로 농토가 없어지면 생계문제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시개발면적의 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영세농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도시개발면적은 건보부에서 오랜 기간 확정 고시한 상태로 마지막 점검이며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어려울 수 있으며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설립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으며 영세민들은 행복도시 선례를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반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영인면에서는 영인산 주변 주차장 및 영인산성 보수요망, 버스노선문제,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충용4리 이창우 씨는 영인면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망하였으며 강희복 시장은 영인면은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으며 승인 후 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구역내 보상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장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를 국내에 시추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설계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선 설계 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영인산 주차장 문제, 영인산성 보수요망, 신원리 공영상수도 급수회합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송촌리 정명제 씨는 송촌리 지역은 628도로 및 43번 국도 공사착공 등 각종 공사업으로 토지잡상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인데,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보존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재산상 손실이 크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이는 전적으로 결정 조정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람의 기간을 가질 것이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돈포면에서는 아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간의 사안이 많았으며 돈포면민의 날 행사시 예산지원, 돈포시내 가로수 교체 및 보도블럭 정비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운곡2리 이승춘 씨는 운곡2구 일구 농지가 돈포산업단지(아산테크노밸리)에 포함이 안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농지가 농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농지를 사업대상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강희복 시장은 해당 농지가 우량농지로 농림부와 협의중이오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산2리 권오재 씨는 21호 국도에서 도고온천역사 진출입로 설치에 요망하였고 강희복 시장은 시에서도 해당 문제점을 통합하고 도로로 인제하여 도로 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자치지역개발분과위원장인 장영호 씨는 도고저수지 오염이 심각하니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건의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오염원은 쪽파의 고농도 유기질비료가 주된 원인인 것 같으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도고면민도 함께 노력하는 물론 실현 가능한 대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도고천 생태하천 조성, 도고산에 스기정, 골짜기를 연계한 관광케이지널요망, 화천분교 폐교 활용 재추진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전정면에서는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서부지역침탄산업단지 추진과 주민 대부분이 수도권과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로·포장 등에 대한 요구와 인구가 유입되도록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장단 협의회장 오인영 씨는 서부산업단지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대한 구체적 설명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거시설을 시정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단계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구역설정을 위한 도, 중앙부처와 협의 후 지구계획 고시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거단지는 연소재기 중심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실과장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으며 터미널 이전은 현재 노후하여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여 현대식으로 설치 예정중에 있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주면은 지난해 12월 21일 1천 3백여 평 방미터가 황해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스플라이, 빈도제를 중심으로 한 침탄산업기능과 관광·위락 등 경제자유구역 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농복아 경제중심지로 급성장 할 것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대책과 향후 추진에 대한 건의가 많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임을 드러냈다.

강희복 시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면적, 인구에 비례하여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개발단계문제, 유보지역에 관한 문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앙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 관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상이라는 확정된 것이 아닌 감정평가에 관한 것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면사무소에서 인주중학교까지 도로확장 및 312호 농어촌도로 추가지정 및 도로개설, 밀두 도시개발 조기시행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도로부분 투자예산인 양어금제도가 폐지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두구 도시개발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고면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신축하여 개관한 장흥선 도고온천역사 주변의 진흙임토와 동양4대 유물유전인 온천관광지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금산2리 권오재 씨는 21호 국도에서 도고온천역사 진출입로 설치에 요망하였고 강희복 시장은 시에서도 해당 문제점을 통합하고 도로로 인제하여 도로 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자치지역개발분과위원장인 장영호 씨는 도고저수지 오염이 심각하니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건의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오염원은 쪽파의 고농도 유기질비료가 주된 원인인 것 같으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도고면민도 함께 노력하는 물론 실현 가능한 대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도고천 생태하천 조성, 도고산에 스기정, 골짜기를 연계한 관광케이지널요망, 화천분교 폐교 활용 재추진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전정면에서는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서부지역침탄산업단지 추진과 주민 대부분이 수도권과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로·포장에 대한 요구와 인구가 유입되도록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장단 협의회장 오인영 씨는 서부산업단지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대한 구체적 설명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거시설을 시정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단계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구역설정을 위한 도, 중앙부처와 협의 후 지구계획 고시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거단지는 연소재기 중심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고 답했다.

▶신정면은 경로당신축 및 폴리텍대학 앞 도로 확·포장, 연소재지 낙후문제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오목1리 오세홍 씨는 오목리는 연소재지나 낙후되었으며 더욱이 서부산업단지 조성으로 향후 더욱 낙후 될 것이 예상되니 대책이 요망되며 개발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대해 좀 것을 건의하자 강희복 시장은 오목리 발전계획은 철저히 공감하고 있으며 오목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폴리텍아산대학 행정직장 김성덕 씨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 확·포장이 개교이전에 계획 확정되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요청, 강희복 아산시장은 신창역사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08 아산시청과 함께하는 대화

▶마지막날인 22일 오후에는 6개 동지역 시민과의 대화와 시청대강당에서 이루어졌다.

동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은양중심상권개발과 관련한 구도심권 정비와 재개발시장 활성화, 도심권 도로 확장 등과 관련한 건의와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현재 2009년 공사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발하게 될 것이며 가늠자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특정 사업마다 헤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나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맞추어 일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6개 동이 함께 대화를 하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을 하기로 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시민의 결심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9월간의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쳤다.



아산시, 행정혁신 종합평가 전국 2위 국무총리표창, 특별교부세 5억원 받는다

행정자치부가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지방행정 혁신 종합평가에서 아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29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혁신평가는 246개(광역시 16, 시 75, 군 86, 구 69)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여 명실공히 전국 모든 지자체의 행정혁신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시는 2005년, 2006년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한 단계 도약, 전국 2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다.

시는 혁신추진 기반인 혁신역량, 혁신과제 추진, 혁신체감도 등 전 부문에서 끝까지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고품질의 대시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글로벌 Edu-city 아산, 재정·설계 심사제 운영, 도로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實事求是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4대 중점 혁신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하여 계획에서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사업비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과 사업의 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중심으로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나로-Clean System 운영』이라는 주제로 전국2위를 차지, 국무총리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3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또한 전국 혁신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아산시 하슬동아리 미래의 과제 도시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실용신안 및 특허출원까지 마쳤으며 현재 조성중인 아산신도시 적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HUB-보건의료, 환경기술지원단 운영, 토목설계단 운영, 하수도 자가 행정서비스 시행,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현장전문보고제 등 다양한 혁신사업 추진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유선종 성과혁신담당은 이날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아산시 혁신을 위해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애근하며 혁신 업무에 매진해 온 결과로 이같은 큰 상을 받게 되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김용국 부시장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유선종 성과혁신담당

이완구 충남도지사 아산시 연두방문 도민대화 가져

아산은 머지않아 세계속에 이름이 빛날 것



2008. 1. 29(화) 14:00 연두순시차 아산시를 방문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강회복 시장과 시 공무원, 시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아산에서 시민을 만나는 이 지사는 서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 아산이 건인자 역할을 했으며 2007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이제 신도시 건설과 함께 외국자본이 들어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며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아산은 머지않아 세계속에 이름이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문화지수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15위로 도내에서 인구 20만이 넘

는 도시의 문화예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10년 동안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0억, 장영실테마과학관에 25억, 경찰종합학교 진입도로에 10억원을 금년에 개회되는 도민체전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강회복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의 정책적인 건의사항으로 국제화도시 건설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도시 책정지원, 경제자유구역 국제무역중심지구 조성 등 아산의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지원과 과학특목고 설립, 온천문화엑스포 및 세계디스플레이엑스포 개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개정』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원 건의서 제출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김학복의원이 발의한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개정 건의서에 대하여 19일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고 각각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서명하였다. 김학복의원이 발의한 건의서에는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구내 주민들은 1단계 조성사업때와 다른 조세법 적용과 행복

도시, 혁신도시 개발지원 주민지원대책 정책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막대한 세부담등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지역주민들이 공익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요구와 소득창출지원사업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 의 서] (아산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개정)

항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임재정 국회의장님과 건설교통부장관님께 23만아산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는 삼성전자 및 삼성 LCD,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많은 기업체가 입지해 있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핵심도시인 뿐 아니라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아산신도시 1단계 3,674,000㎡ 조성사업과 아산신도시 2단계 17,466,000㎡ 조성사업 및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산신도시2단계 조성사업 지구내 주민들은 1단계 조성사업때와 다른 조세법 적용과 행복도시, 혁신도시 개발지역 주민지원대책정책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막대한 세부담 등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단계 신도시 조성사업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았으나, 금년부터보상이 실시되는 2단계 조성사업 지역 주민들은 조세특례제한

법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단계 사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또한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 54조 3항과 국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7조 2항에 의해, 소득창출사업 지원등 주민재정책이 필요한 지원대책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는 소득창출사업 지원등의 규정이 없어 주민지원 대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국가 공익개발사업이라도 세급과 주민 재정책 지원대책 등에 많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역 주민들

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있으며, 이로 인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2단계 신도시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지역주민들이 공익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시어 1단계사업 지역과 조세형평성을 맞춰주시고,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특별법과 같은 소득창출 사업지원 등 주민 재정책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2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2008년 제2회 의원회의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2008년 1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의정실에서 2008년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2008년 2월 11일~2.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19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평전식

사무국장으로 부터 설·대보름 관련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실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림과장으로부터 용화동에 위치한 예비군 교육장이 배방면 수월리로 이전함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아산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2008년 1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의정실에서 2008년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2008년 2월 11일~2.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19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평전식 사무국장으로 부터 설·대보름 관련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실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림과장으로부터 용화동에 위치한 예비군 교육장이 배방면 수월리로 이

전함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119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내역

『아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면의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위안가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장비 기준,에 따라 아산시 조례의 제명을 일괄적으로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인용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세계 최첨단 LCD산업단지 조성, 핵중국 수출전진기지 조성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 우리시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재설계 하고자 함.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세계 최첨단 LCD산업단지 조성, 핵중국 수출전진기지 조성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 우리시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 및 인력체제를 재설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현행 아산시세 감면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계 법령 변경 등으로 이에 맞추어 시세 감면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별법,에 의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07.10.10)에 따른 차질회전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집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목적으로 배방 푸르 지오 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의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

『아산시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6. 4. 28일자로 『공동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06. 10.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화장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 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시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시행을 의무화 함.

『아산시 하수도사업규정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07. 9. 27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 하수와 오수의 단일화로 효율적 행정추진 및 중수도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로 수자원의 재활용체계 확보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온천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적정 양 수량을 인정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온천수가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온천관 소양자 및 온천수 이용자가 관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의견서채택』

아산시 신항면 남성리 579-13번지 일원은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상 온양 소생환경 주거용지역 제2종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바 편익예정 토지일부가 온양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 해제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현행한 지·출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아산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 법개정에 따른 건의서: 건의서채택』

아산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구 내 주민들은 1단계 조성사업 때와 다른 조세법정율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개발지역 주민지원대책 정책이 차별성으로 인해매달 세 부담 등 재정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0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산업안전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중추위원회

아산호의 진실(眞實)과 오기(誤記)

한 명

우리는 누구나 진실 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진실을 속이고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진실을 왜곡하여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말을 하거나 행동하여 상대방을 몰아 부치거나 난처하게 만들어 자신들만이 가장 진실 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합리화시킨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래의 세계를 젊어지고 살아갈 후손들에게 모든 진실을 정확하게 전하거나 가르쳐주고 물려줄 책임이 있다.

아산호는 1974년 5월22일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와 평택시 팽성면 권리를 연결하는 방조제의 준공으로 생긴 인공호수로서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천서하여 준공기념식과 배수갑문 열 방조제위에 “아산호”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가 새겨진 기념탑이 “아산호 준공기념탑”이라고 새겨진 좌대위에 건립되었고 박대통령의 치사중에서 “우리세대의 힘으로 이룩한 이 빛나는 업적을 민족사에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보람찬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시다”라는 비문과 함께 기념탑 앞에는 팔각정과 조경수들이 가꾸어져 민족의 운이 담긴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민족사에 자랑스러운 ‘아산호’가 평택지역에서는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팽택호’로 오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진실 된 역사를 전해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팽택역 구내에 게시된 홍보물에 팽택항과 KTX와 아산호가 팽택호로 둔갑 된 채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역 관계자에게 ‘팽택호’가 틀리고 고유명사인 ‘아산호’가 맞다는 설명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팽택지역에 조성된 팽택호 국판관광단지라는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은 고유명사라 하겠지만, 아산만의 바다를 방조제로 막아 준공되어 생긴 인공호수인 ‘아산호’는 아산·팽택지역의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하고 유병사로는 팽택호가 아닌 ‘아산호’라는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아산시의회 의장 이기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아산호 준공식에 참석해 지시받은 중

▲기념탑에 좌대 새겨진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에 대한 설명



▲현재의 홍보물에 “아산호”가 팽택호로 잘못 표기되었다.

2008. 2.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장영실과학관

BTL사업 본격 추진

시가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장영실과학관이 배미동 24-번지 폐기물소각장 건립 지역내에 부지면적 5,032㎡, 연면적 4,95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50억여원을 사업비를 들여 BTL 방식으로 건립된다.

2006년 2월 장영실과학관이 입대형민자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었고 지난달 3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미래과학주식회사 협상단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측 협상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개시 및 협상단상견례, 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아산시측 협상단장인 김용국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산시가 주요 역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영실과학관이 장영실선생의 과학정신을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되새겨 창의적인 과학정신을 키워주고,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차별화되고 훌륭한 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조와 원만한 협상 진행을 주문하였고,

(가칭) 미래과학주식회사의 협상단장인 김재일 대표는 아산시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인사말을 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실무협상에서는 제형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시연출계획, 건물의 디자인 재조정과 향후 실무협상 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전시연출계획 및 건축계획을 우선 협의하고 건물 디자인에 대하여는 우선협상대상자측이 검토한 2~3개의 대안을 제시하여 재협의하고, 협상방법은 부분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장영실과학관 1차 실무협상을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 90일간의 협상과정과 실시협약 및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 장영실과학관 초안도

아산시 주민생활 곤란 지수 제로화 추진

공급자 중심에서 수급자 중심의 복지행정 체제 구축

아산시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에 따라 법과 기준에 묶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과 2007년 보호종지자, 책정 제외자 중 보호가 가능한 가구를 재검토하여 지원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자는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을 정밀 검토한 후 2008년 선정 기준 적합 시 즉시 보호를 하는 등 주민 생활 곤란 지수 제로(Zero)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제도적 보호가 어려운 실질적인 생활 곤란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시로 지역 순회를 하여 복지위원, 마을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와 연계보호 및 긴급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곤란 최소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에서 수급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아산시, 열린사이버대학교와 관·학협약 체결

아산시민에게 입학금 면제와 장학금 혜택

아산시(강희복 시장)와 열린사이버대학교(장성근 총장)가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시는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인 열린사이버대학교(www.ocu.ac.kr)와 2월 19일 시장실에서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는 시민들에게 입학금 면제 및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협약체결과 함께, 시민이면 누구나 동반입학장학 또는 학생추천장학 등, 1개 이상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현업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시와 협의의 거쳐 외래강사로 임명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육이 곧 시 발전의 원동력을 감인할 때, 시민들의 대학입학은 아산시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학습시간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열린사이버대학교의 관·학 협약은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은 아산시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평생교육의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체제 구축 차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협약에 따른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매 학기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 승마를 통한 재활치료



▶ 휠스파워 휠체어 농구단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아산시가 설립하고 현재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상담교육, 의료재활,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생활체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1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07년 3월에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한 해 동안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654회 지원하였다. 이로써 개관 이래 수행해온 이동목욕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의 병원동행, 은행업무·관공서 등의 민원업무 대행, 재활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한 차량지원을 하는 이순신 콜 서비스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산재근로자 자립기반을 위한 창업스쿨은 2002년 장애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77여명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현장지도로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전국 우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표창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의 정보화교육장을 장애인가족과 장애인들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140여명 전국 장애인정보화 교육장 평가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였다.

2003년 창단한 휠스파워 휠체어 농구단은 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장애인복지의지를 고취시키고 대회출전,교류전, 시범경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있다. 급년에 처음 도입하여 시작한 승마치료, 국악치료, 무용치료,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의 치료교육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기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입니다'라는 모토 아래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입자를 위한 Welcome to asan 안내책자 발간

다양한 생활정보와 행정정보가 가득



시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시정을 이해하고 편리함을 더하고자 시정에 대한 기본현황과 생활안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수록한 『전입자를 위한 아산시 가이드북』 홍보책자 1만3천부를 제작하였다.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대규모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전입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아산시 인구는 지난 2007년 12월 221,490명 이었으나 금년1월말 224,381명으로 한달새 3,000여명이 증가했다.

※ [전입자를 위한 아산시 가이드북] 주요내용은 :

-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산 : 연혁, 문화유적, 아산의 인물, 문화축제, 상징물, 일반현황,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현황, 아산시의회
- 아산민원광장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민방위, 여권, 민원권의 제도, 시민생활 불편신고 안내, 지방세 월별 납부일, 쓰레기 버리는 요령
- 아산생활정보 : 전·입학 절차, 학교현황, 보건소 프로그램, 읍면복지국민생활관 프로그램, 도서관 안내,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민복지시설, 유관기관/병원안내/금융기관, 교통안내
- 아산테마광장 : 주요명소, 온천안내, 우수 농·특산물, 요식업 모범업소, 관광지 현황, 체육·청소년시설, 생활체육단체 현황, 등산안내, 아산시 오시는 길, 아산시 관내도 등으로 아산시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구성되어 있다.

※ [전입자를 위한 아산시 가이드북] 홍보책자 발간으로 아산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오는 세대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와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거주환경의 빠른 정착과 생활의 편리함, 아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수도물 불신, 이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시는 수도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불신사례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수도물은 요금이 저렴하고 항상 풍부하게 공급되는 관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데다가 일부 전수기 및 색수 판매업자들이 판촉활동 과정에서 수도물의 수질을 왜곡 선전하기도 하고, 약수터 주변에서 근거 없이 주고받는 막대한 수도물 불신 이야기와 일시적이고 일부지역에 국한된 수질사고나 음독물의 급수 장사시 음향출출수 등의 현상이 늘 계속되는 것처럼 믿는 심리 등이 수도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오해했던 막대한 수도물 불신을 사례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했는데,

▶ 수도물을 전기분해하면 적색양금이 생겨 못 마신다 ▶ 일부 정수기 판매업들이 판촉과정에서 전기분해 실험으로 수도물에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중금속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수도물에서 전기 분해 후 발생하는 적색양금은 물속의 미네랄이 전기를 통하게 해서 생기는 것이며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 지하수, 약수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일부 정수기들은 적색양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 수도물은 소독약 냄새 때문에 그냥 못 마신다 ▶ 염소소독은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공급과정에서 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주로 이용되고 있고 오히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전류염소가 제거되어 1-2시간 후에는 미생물(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먹는 물도 전류염소가 없어 공기와 접촉할 때 세균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염소냄새는 수도물이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이다.

▶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하얀 물이 나온다 ▶ 하얗게 보이는 현상은 이물질이나 약물이 아니라 수압이 높을 때 물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수도꼭지를 통과하는 순간 압력저하 현상에 의해 매우 작은 공기방울이 발생된 것(액수해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얀 공기방울은 없어지고 원래의 맑은 수도물이 된다.

▶ 수도물은 공급과정에서 흰분(녹물)이 녹아 나온다 ▶ 수도물은 수도관을 이용하여 공급하기때문에 노후된 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 앞까지의 수도관은 20년 이상 경과된 순서로 전역 시비로 녹이 슬지 않는 티타인 주철관 또는 PFC관으로 교체된 후 추진하여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있지만 건물주 관리 하에 있는 아파트, 빌딩, 또는 단독주택의 내부(욕내)배관이 노후되면 이른 아침 처음 수도물을 틀 때 배설물 정제된 수도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이런 때에는 수도물을 잠시 틀어놓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물은 끓이면 죽은 물이 되고 약수를 먹으면 몸에 좋고 살아 있는 물이다 ▶ 물을 끓이면 용존산소가 감소하나 인체에 필요한 산소공급은 공기 중의 산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물의 역할은 혈액의 순환, 소화액의 분비, 신진대사를 위한 일종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용존산소나, 영양소의 기준은 없는 것이며,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마셔야 한다.

▶ 수도물이 마르면 얼룩이 남아있어 불순물이 많이 있다 ▶ 물은 무색투명하고 깨끗하지만 물속에는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이온상태로 녹아있다. 마치 수도물에 소금을 넣으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지만 맛을 보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은 증발되지만 물속의 미네랄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염이 형성되어 흰색이나 회색의 얼룩이 남아 있게 된다. 물론 증류수나 일

부 정수기들은 미네랄 성분이 전혀 없어 일찍이 형성되지 않는다. 수도물은 적당량의 미네랄(약 100mg/l)이 들어 있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 욕조나 화장실 등에 물을 받아 놓으면 물때가 생겨 아슬한 수 없다 ▶ 수도물은 욕조에 오랫동안 받아놓으면 미끈한 물때가 끼거나 세면대 주변에 분출물 등 물때가 끼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물속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이다. 처음에 수도물을 틀었을 때 산류염소가 있어 미생물이 자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독제는 휘발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유난히 타인에서 형성되어 물때가 생기는 현상이다. 신축건물 경우는 타일표면에 착색된 코발트화합물 등이 세제 성분과 반응하여 분출물 때를 형성할 수 있다.

▶ 수도물에서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난다 ▶ 수도물에서의 염소소독 외의 냄새(흙, 곰팡이 냄새)는 주로 하천수나 호수에서 계절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류(식물성플랑크톤)에 의해 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화장기에 발생되는 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 정수처리 공정에서 활성탄등과 같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조류로 인한 냄새는 수도물을 끓인 후 차게 해서 음용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으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폭종종 하수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수도관과 섞여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 먹는 물 수질기준 : 보통사람이 하루 2ℓ 평생 동안(70년) 물을 마실 경우에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양에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1을 곱하여 안전한 수치로 설정한 값을 말한다. 따라서 수질기준이내의 물이면 우리가 평생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55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항목의 농도를 수치로 표현하여 규제하고 있다.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용화동 용화정수장 내에 있는 수질시험실에 자체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유독물질분석기 및 광광광도계 등 정밀분석기기 3종 및 시험장비 17종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등의 국내급수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 공동시설,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1천㎡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음식점 및 아파트 등의 저수조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및 학교·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하여 수수료로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여 대상시설의 수질 검사의뢰에 대비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따라서 아산지역의 대형건축물 및 저수조를 관리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동안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 천안, 대전에 있는 수질검사기관을 찾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먼 7천만원의 검사수수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과 고품질의 수도물을 생산·관리할 수 있는 검사능력을 갖추게 되어 수도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상수도과 537-3550]



읍면동 소식

나대지 청소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매일청소소)



(매일청소소)

북수지구 구획정리 지역에 있는 일부 토지 나대지가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아 건축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풀숲이 우거져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해충이 발생지가 되는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배방면사무소(면장:이재용)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대지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유자 83명에게 관련법에 의거 협조 우편물을 발송하여 쓰레기 수거를 당부하였다.

또한, 청소가 안 된 나대지에 대하여는 청소과와 협의하여 직접 청소를 실시하여 깔끔히 정리되었다. 배방면사무소에서는 앞으로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은 나대지는 관할 마을 이장님이나 상가번영회와 상의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을 권유할 계획이다.

아산 웃다리농악의 맥을 찾아서



은양4동 배미1통(통장 전태웅)에서는 아산시 풍물연합회 회원, 유관기관단체장을 비롯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행사로 「아산 웃다리농악 풍물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300년 전부터 지속해 온 대월 정월 초 역세가 되면 마을의 수호신인 마복불에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마을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지내는 우물고사, 마을 집마다 다니며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배미1통 주민들은 폐기물소각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제도 함께 지냈다.

한편 배미1통 전태웅 통장은 “이 행사로 인해 옛 풍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고증으로 선대들이 이룩해 놓은 문화를 원형 그대로 계승·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바람의 뜻을 전했으며, 함께 참여한 은양4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산골품앗이 협의회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의 우수성과 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름달보고 소원비는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잔치”



은양1동(동장 김양현)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흥겹고 신명나는 지역민들끼리 위한 주민화합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날 잔치는 은양1동 새마을지도자(회장 홍정수, 박옥자)에서 주최한 가운데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7개 단체 및 각 통별 지역주민들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은양1동 주민자치센터의 자랑스러운 공로자의 풍광놀이 공연으로 시작하여 은양은현의 옛 명성을 되찾고 침체되어가는 지역경기가 살아나 활기차고 신명나는 은양1동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운천기원제와 각 단체와 주민간 화합을 다지는 민속놀이 대회(제기차기, 윷놀이 등)로 이어졌다. 민속놀이후에는 새마을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떡국을 먹으며 이웃간이 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김양현 은양1동장은 주민들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한 이번 한마당잔치가 주민자치문화를 자리 잡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은양1동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어 더없이 기쁘고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산경찰서 교통질서 확립운동 대대적 전개!!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에서는

-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생활질서 중에서도 가장 기초질서인 ‘교통질서’를 바로세워 나가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2008 교통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만 먼저 가겠다’는 남의 안전과 불편을 배려 않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운전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 세계 무역대국 11위의 우리나라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의 운전문화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시민의식으로 거듭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08. 2. 1(금)~3. 31(월)까지 2월간, 집중홍보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 기간 중 위반행위는 적극 계도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 '08. 4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은 「법과 질서 준수」에서 시작됨을 인식하고, 배속중대 적극 활용하여 아산시내 상습 정체교차로인 고숙철입구, 모산3가 등 꼬리잡기를 통해 교차로 질서부터 바로세우는 한편,
-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과도 함께 교통질서 지키기 ‘봄’을 조성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 자동차 생활 필수품 시대와 맞바꾸어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매우 불편한 현실에서 더 이상 도로 확장이 어려운 한계점에 달한 요즈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이어져 원활한 물류수송 등 사회적 손실이 예방되어 경제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이제는 우리 모두가 권법과 불법은 더 이상 시도하지도, 용인하지도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 운전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회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회 임기 :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선출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08. 3. 20일까지, 지역위원 : 2008.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공립-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권한과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기타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 등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 내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관리담당 ☎539-2234 및 해당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제2기 시민생활관 (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강생모집

2008년 제2기(4월~6월) 시민생활관(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교양·문화·기술·기능 교실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08. 3. 3. ~ 3. 14까지 선착순 모집
- ★접수처: 시민생활관(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본관(T/537-3901, 3907)
- ★등록금비율: 수강료(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수강신청서
- ★교육기관: 2008년 4월 ~ 6월(3개월간)



과목	모집인원	요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강료
[교양·문화 강좌] 15개과목 325명					
글쓰기·독서지도(기초)	20	월	10:00~12:00	어린이글쓰기, 독서지도	18,000
논술기초	20	월 수	13:00~15:00 10:00~12:00	초등논술, 역사논술지도	30,000
부모자녀 대화법	20	화, 목	10:00~12:00	부모자녀 대화법, 영어독서지도	30,000
북아트	20	화	10:00~12:00	어린이 북아트 지도	18,000
생활도자기(중급)	25	월, 화	10:00~12:00	직접 굽는 도자기(중급)	30,000
생활도자기(초급)	25	수, 목	10:00~12:00	직접 굽는 도자기(초급)	30,000
서예	25	화 금	14:00~16:00 10:00~12:00	문자구성 및 작품쓰기	30,000
서양화	20	월, 화	10:00~12:00	유화기초, 풍경화, 정물화	30,000
생활영어(초급)	20	월, 수	10:30~12:3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30,000
생활영어(중급)	20	월, 수	13:00~15:0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30,000
일본어	20	목, 금	10:00~12:0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30,000
중국어	20	수 금	14:00~16:00 10:00~12:00	생활중국어 이론 및 회화	30,000
한국무용	25	화 수	10:00~12:00 14:00~16:00	한국무용기초, 화관무, 부채춤, 장구	30,000
모듬북	25	화 수	14:00~16:00 10:00~12:00	모듬북 익기 연주법	30,000
민요	20	화, 목	14:00~16:00	경기민요 등	30,000
[기술·기능 교육] 9개과목 175명					
생활요리	30	화	10:00~12:00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요리 및 영양요리	18,000
제과제빵	20	수, 금	10:00~12:00	직접 굽는 빵과 쿠키	30,000
한복·양재	20	화 금	10:00~12:00 14:00~16:00	한복, 양재, 수선	30,000
홈패션	20	월, 목	10:00~12:00	생활소품 만들기	30,000
필트	20	월, 목	10:00~12:00	손으로 만드는 생활소품	30,000
천연비누	15	화	10:00~12:00	천연비누 만들기	18,000
천연화장품	15	금	10:00~12:00	천연화장품 만들기	18,000
폴리머 클레이	15	월 수	14:00~16:00 10:00~12:00	점토를 이용한 각종 액세서리 만들기	30,000
풍선아트 자격증반	20	화, 수	14:00~16:00	풍선아트 자격증 취득	30,000

※ 교육입장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도 있음
- 수강신청 취소는 아산시 시민생활관(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예약관조례에 의거 수강료 일부환불 가능
- 30개월 이상 수강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일시 놀이방(정원 15명 이내) 운영
- 1인 3개 이상 강좌 중복 등록 제한(접수후 발견시 다음기수 등록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경노자(65세 이상)는 수강료 70% 감면



[국민생활관 영화상영]

- 상영작: 무방비도시
- 상영일: 2008년 3월 2일
- 상영시간: 11시 00분, 13시 20분, 15시 40분
- 관람대상: 15세 이상
- 관람료: 청소년, 고교생까지 무료, 성인 3,000원
- 문의처: 시민생활관(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담당 (☎537-3907 ~ 8)

[뮤지컬 공연 '달의 노래']

- 공연일시: 2008. 3. 7(금) 19:00 ~
- 장소: 시민생활관 극장
- 주관: JAB엔터테인먼트
- 후원: 아산시

[뮤지컬 공연 '성웅 이순신']

- 공연일시: 2008. 3. 15(토)
- 장소: 시민생활관 극장
- 주관: 인제뮤지컬

[시민합창단 신춘음악회]

- 공연일시: 2008. 3. 20(목) 19:00 ~
- 장소: 시민생활관 극장
- 주관: 아산시립합창단



극단 온양 '울고 넘는 박달재' 창단 공연 대성황

16일(토) 오후 3시와 6시30분 2회에 걸쳐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극단 온양의 창단공연 '울고 넘는 박달재' 공연이 500석 규모의 올림픽기념관을 꽉 메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접의자를 놓고 관람을 했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작품 '울고 넘는 박달재'는 민족정서에 맞는 전통극과 뮤지컬을 조화시켜 만든 악극으로 우리의 근세사를 통해 현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족간의 사랑과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이다.

문화 소외 지역에서 꾸준히 공연활동을 해오며 악극의 생명력을 이어온 극단 '온양'의 정성을 기울인 이날 공연에는 인기탤런트 최수봉, 최루시아, 강예슬 등 중견 연극배우를 포함하여 30명이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강

희복 아산시장이 재관장으로 깜짝 출연하여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했다.

관계자는 "기존의 악극은 장년층을 겨냥하지만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흘러간 옛노래가 아닌 현대의 감각에 맞게 레퍼토리의 변화를 주었으며 스피드한 진행으로 웃음과 감동을 교차시키며 전달하고 지루한 부분을 과감히 줄였으며 총합의 프로 연극인들이 뭉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좋은 작품 공연이 이어져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아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